

부산지역 청소년의 스트리트 패션 경향 분석

노경혜 · 이경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An Analysis on the Street Fashion Trend of the Adolescent in Pusan

Kyung Hye Noh and Kyoung Hee Lee

Dept. of Textile & Cloth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basic materials for fashion merchandising by observing the street fashion of the juveniles and by analyzing their wearing, coordination and fashion trend. We have taken the photograph of the street fashion of 202 male teenagers and 265 female teenagers in Busan, and analyzed in the category of style, item, color, pattern, materials, hair style, shoes and accessories. We have concluded that the most frequent items were shirts (male), turtle neck (female) and jeans. The main style was casual just as jumper-look, sweater-look, gardigan-look. The typical female fashions that were hip-hop-look, twin neat-look, trench coat-look, were more various than male. For the color coordination, contrast color coordination was more dominant than similarity color coordination. Dominant patterns were solid, and also check and stripe patterns were frequently found in upper garment. The representative materials were soft for upper garment, and hard for trousers. Male teenagers prefer middle-length hair style and female teenagers prefer long hair style. The juveniles in Busan are wearing sports shoes and leather shoes in similar frequency. Their favorite accessories are bag, muffler and hat.

Key words : street fashion, style, item, color, pattern, hair style

1. 서 론

현대의 청소년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자라고 컴퓨터와 통신에 익숙한 세대들로, 자기 주장과 자기표현이 강하고 남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개성이 강하다. 남과는 다른 문화,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개성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한 반면에 자기 집단의 동일시 욕구와 모방심리도 함께 표출한다.

청소년기는 패션과 유행에의 관심에 눈뜨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의복과 외모를 중시하는 성향이 점차 강해져 단지 옷을 구입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유행 경향을 예견하며 패션을 창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감당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의복 착장 동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의복 특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지도차원에서 비행청소년의 의복행동이나 상황에 따른 추구이미지, 자아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패션 니즈와 패션 감성, 패션 착장 스타일에 대한

정보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은 캐주얼의 경향으로 인해 단일 품목을 조합해서 연출하는 의복경향을 보여왔고, 같은 아이템의 옷도 자신의 개성표출을 위해 다양하게 착장하는 등 패션 착장 스타일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트리트 패션 조사방법이라는 직접적인 소비자 관찰을 통해 탐색적이고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를 해서 스트리트 패션을 통한 청소년의 의류품목 착용 실태와 코디네이션 현황, 유행경향 등의 소비자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이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기획 전략 수립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청소년을 의미하는 'adolescence'는 성장한다라는 뜻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커다란 발달이 이루어지는 전환의 시기를 의미한다(최윤미, 1998). 이 시기에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크고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아개념이 아직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의복 유행을 통해 또래 집단에 동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시기이다(강혜원, 1995).

청소년들은 의복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정보를 또래 친구나 TV와 같은 영상매체, 인쇄매체 등을 통하여 탐색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그룹내의 유행을 익히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는 가족에 이탈하여 동료집단의 승인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고, 그들의 동료집단은 옷이나 다른 외모 요인들을 근거로 하여 형성되기도 한다(MacGillivray & Wilson, 1997).

이 시기는 어떤 시기보다도 의복에 의하여 그들이 소속한 집단에 동조하려고 하는 열망이 가장 강한 때이며, 패드나 유행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들은 동조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의복을 채택하므로 자신의 신체적 매력과 의복에 흥미를 가진다. 청소년의 개성 표출은 의복을 통해 비교적 쉽게 나타난다. 같은 옷이라도 변형을 하거나 자신만의 연출력이 발휘되는 단품 코디네이션을 선호한다. 또 의복을 입을 때 나이, 성별, 사이즈 등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 입는 옷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성이나 남성의 옷으로 구별하지 않으며, 맞는 사이즈라는 의미는 꼭 신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캐릭터가 새겨진 의류, 모자, 가방, 신발 등 캐릭터 패션도 이들의 개성과 감각을 표현하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채선주 · 조규화, 2000).

Hurlock(1973)은 청소년기에는 동료 집단에서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의복이 그 수단으로 이용되며 친구들간에 인기도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의복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이은실 · 이명희(1999)는 남녀 청소년들의 용돈이 많을수록 유행에 더 몰입하며, 유행의 몰입정도가 높을수록 정보탐색의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문미아 · 박혜선(2000)은 청소년의 집단에 따라 특정한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과 착용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복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집단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의복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생활 속에 표현하고자 한다.

한편, 현대 패션은 매우 다양한 진원지를 갖는데, 소수의 창작자들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곳에서 아이디어가 제공되어 하이패션으로 흐르고 다시 대중화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거리에서 보이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혜영(1996)은 스트리트 패션이 영패션의 양식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며, 트렌드 기획자는 트렌드의 방향을 잡을 때 피상적인 해외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 현실에 맞는 방향을 잡을 때 스트리트 패션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션산업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소비자 중심의 산업이며, 감각산업과 멋을 창조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와 환경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으로서 예측하기가 힘들고, 현대 소비자들은 점점 더 다양화, 개성화 경향을 보이므로, 상품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상품주기의 단축화로 패션기업은 생산의 다품종, 소량화 체제로 변환하게 되었

고, 그 결과 상품기획 과정에서 더욱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다(고은주, 2001).

오늘날의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 의식, 상표인지도, 선호도, 구매관행 등과 같이 소비자 반응을 통한 것과 착용경향, 광고효과, 구매패턴 등과 같이 소비자 관찰을 통해 조사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데(임숙자 · 신혜봉 · 김혜정 · 이현미, 2001)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분석하여 소비자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고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적으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소비자 정보를 얻기 위한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관찰법, 서베이법, 집단토의법 등을 들 수 있다(안광호 · 황선진 · 정찬진, 1999). 관찰법의 하나인 스트리트 패션 조사는 거리를 다니는 소비자의 패션 제품 착용실태를 직접 관찰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스트리트 패션 분석은 표적시장이라고 여겨지는 소비자의 의복 착용 실태를 관찰하거나 카메라에 담아서 스타일, 아이템, 색, 소재 등의 패션 분석 단위 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소비자의 의류 품목 착용 실태나 코디네이션 현황 등을 알 수 있어서 패션 변화와 유행되는 패션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스트리트 패션 조사법에 대한 활용으로 정은숙 · 김지선(2001)의 20~30대 여성 소비자들의 착장 동향에 대한 연구와 한국패션협회(2000)에서 2000년 패션수요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며, 인터패션 플래닝사와 삼성패션연구소, 서울패션디자인센터 등의 국내외 유행 정보업체에서는 시즌마다 스트리트 패션 조사법에 의한 소비자 의복 착용 경향을 조사발표하여 그 시즌 평가 및 다음 시즌 기획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패션의 동조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청소년들을 분석, 활용하기에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스트리트 패션에서 분석한 청소년의 패션 정보는 현재의 청소년의 착장 경향을 알아보고, 미래의 정책을 입안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예측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01년 9월 15일에서 11월 5일에 걸쳐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조사 지역은 부산 지역의 광복동, 서면, 해운대, 광안리, 부산대앞, 경성대앞, 동아대앞에서 스트리트 패션 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은 10대 후반의 청소년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컷에 들어오도록 사진 촬영을 하였다. 전체 남자 청소년 202명과 여자 청소년 265명의 사진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분석방법

수집된 사진을 대상으로 상의, 하의 아이템을 나누어 청소년

의 착용스타일을 살펴보았으며, 색채분석은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을 평가한 은소영(2000)의 연구를 기준으로 색상의 수에 대한 항목과 의복 배색을 유사배색연출, 대조배색연출로 나누었으며, 무늬는 사실무늬, 양식무늬, 추상무늬, 기하학무늬(이경희 외, 2001)로 분석하였다. 소재는 의복 재질의 시각적 감성을 평가한 오해순(2000)의 연구를 근거로 하드(hard)한 재질, 소프트(soft)한 재질, 트랜스페어런스(Transparency) 재질, 브릴리언스(brilliancy) 재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헤어스타일과 신발 등을 항목별로 코딩한 후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남자 청소년 스타일 분석

10대 후반의 남자 청소년 2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이템 분석 :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이템은 한 사람의 청소년이 입고 있는 모든 아이템을 분석 대상에 넣었다. 남자 청소년

Table 1. The item analysis of wearing style of male teenagers

상 의		하 의	
아이템	빈도 (%)	아이템	빈도 (%)
셔츠	102 (50%)	청바지	70 (34.3%)
티셔츠	79 (38.7%)	면바지	66 (32.4%)
점퍼	55 (27.0%)	정장바지	43 (21.0%)
스웨터	44 (21.5%)	트레이닝바지	22 (10.8%)
가디건	30 (14.7%)	기타	3 (1.5%)
터틀넥	17 (8.3%)		
자켓	16 (7.8%)		

년이 가장 많이 입는 아이템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은 상의와 하의의 아이템 항목에 대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많이 나타났던 상의의 아이템은 셔츠 102명으로 전체의 50%가 셔츠를 착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티셔츠로서 38.7%가 착용하고 있었으며, 점퍼는 27.0%, 스웨터는 21.5%가, 가디건은 14.7%, 터틀넥은 8.3%, 자켓은 7.8%로 나타났다.

하의는 청바지가 70명으로 34.3% 착용하고 있었으며, 면바

Fig. 2. The color analysis of wearing style of male teenagers.

지 32.4%로 청바지와 면바지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정장바지 21.0%, 트레이닝바지 10.8% 빈도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아이템으로 여러 가지 연출로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Fig. 1에 대표적인 착용 스타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의 하의의 연출로 살펴보면 하의에 면바지나 청바지를 착용하고 티셔츠나 셔츠를 입고 점퍼를 연출시킨 점퍼룩이 편안한 이미지를 주며 24.0%로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스웨터룩으로 하의에 청바지나 면바지를 입고 스웨터를 착용한 스타일로 모두 35명이 입어 17.2%를 나타내었다. 세 번째는 가디건룩으로 면바지에 셔츠, 그 위에 가디건을 착용한 스타일로 단정한 이미지를 주는데 모두 29명이 입어 14.2%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다음은 청바지, 면바지 위에 티셔츠를 착용한 스타일로 27명이 입어 13.2%를 차지하고 있다. 청바지나 면바지에 상의로 셔츠의 단추를 채워 입거나, 셔츠 안에 티셔츠를 입고 오픈시켜 입는 셔츠룩이 22명 입어 전체의 10.8%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하의에 통이 좁아지는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나 셔츠를 착용하고 그 위에 자켓을 입은 자켓룩이 4.4% 빈도를 나타내었는데, 자켓의 길이가 짧고 몸에 피트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정장룩은 상하 정장으로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한 스타일로 성숙한 이미지를 주며, 3.4%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세미정장룩은 상의에 자켓, 하의에 정장바지를 착용한 스타일이지만, 상의, 하의 색상이 다르고 이너웨어로 티셔츠를 연출시킨 스타일로 2.94%의 남자 청소년이 입고 있었다. 다음은 하의에 트레이닝바지를 입고 상의에는 트레이닝점퍼를 입거나 점퍼를 입은 스타일의 트레이닝룩으로 22명의 남자 청소년이 입어 10.8%를 차지하고 있다.

색채 분석 : 10대 후반의 남자 청소년들의 복장은 상, 하의

전체 정장 스타일을 착용하기보다는 단품의 아이템을 각각 연출하여 착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므로 각각 아이템의 색상을 추출해 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색 연출하였는가를 중심으로 관찰하여 분석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의복 색채 연출을 관찰한 결과, Fig. 2에서 상하의 의복 색을 단일 색으로 연출한 스타일은 4명이며, 2색 이상의 의복으로 연출시킨 스타일이 200명으로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색 이상 배색연출한 스타일 중에서 유사배색 연출이 11.7%, 대조배색 연출이 86.2%로 나타나 상하 의복의 색상을 대조배색으로 많이 연출하고 있었다.

남자 청소년 중에서는 단품 코디 스타일이 많았는데, 단일 색상으로 연출시킨 스타일은 4명이었으며 모두 블랙으로 나타났다. 상하 의복을 두 색으로 연출시킨 스타일은 모두 115명으로 동일한 색이나 유사한 색상으로 배색한 유사배색은 18명으로 관찰된 반면 반대계열의 색으로 배색하거나 톤차가 나는 배색연출한 경우는 모두 97명으로 나타났다. 3색으로 유사배색한 경우는 6명, 3색으로 대조 배색연출한 경우는 71명, 4색 이상의 대조배색으로 연출한 경우는 8명으로 나타나 전체 색상 분석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대조 배색으로 연출하는 빈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무늬 분석 : 전체 202명의 남자 청소년 중에서 무늬의 의복착용이 144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하여 무늬가 있는 의복 스타일보다 착용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무늬가 있는 의복을 착용한 청소년은 24명으로 11.8%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무늬중에서 사실적인 무늬는 한 명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은 무늬가 있는 의복의 착용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하학무늬 중에서 체크무늬가 12명으로 가장 빈도가 높고, 그 중에서도 셔츠 아이템에서 많이

Fig. 3. The pattern analysis of wearing style of male teenagers.

적용되고 있다. 스트라이프 무늬는 가디건이나 폴로셔츠, 스웨터 아이템에서 관찰되었다. 추상무늬와 양식무늬는 스웨터 아이템으로 착용되고 있으며 소프트한 소재로서 상의에 연출하고 있다. 한편 로고, 캐릭터 등 원 포인트 무늬는 모두 36명으로 조사되어 17.6%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대표적인 아이템은 티셔츠와 후드티였다.

소재 분석 : 소재는 선행연구(오해순, 2000)에 따라 시각적으로 하드(hard)한 재질, 소프트(soft)한 재질, 브릴리언시(brilliant)한 재질, 트랜스페어런스(transparency)한 재질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계절적인 영향과 현재 유행경향에 따라 트랜스페어런스 재질은 전혀 관찰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각의 상의, 하의 아이템에 따라 재질을 분류한 후,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출하여 입었는가를 분석하여서 유사한 재질끼리 연출한 경우와 이질적인 재질로 연출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 남자 청소년 착용 스타일의 소재분석에 대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유사재질에서 상의, 하의를 동일재질로 연출한 경우는 정장 스타일로 3.4%로 나타났다. 상의, 하의를 유사한 재질로 연출한 경우는 하드한 재질과 하드한 재질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52명으로 19.6%의 빈도를 보였다.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점퍼, 자켓, 셔츠의 상의에 청바지, 면바지로 구성된 스타일로 나타났다. 소프트한 재질과 소프트한 재질과의 연출된 경우는 티셔츠, 점퍼와 트레이닝바지로 나타났는데, 18명이 입어 8.8% 빈도를 보였으며 대체로 트레이닝룩이었다. 상의와 하의에 모두 브릴리언시 재질의 연출도 트레이닝룩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상의, 하의에 각각 이질적인 재질과의 연출에 대한 결과이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하드한 재질의 면바지, 청바지의 하의아이템과 소프트한 재질의 가디건, 스웨터의 상의

아이템의 착장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104명이 입어 전체 51% 빈도를 보였다.

두 번째는 하드한 재질의 면바지, 청바지의 아이템과 번쩍임이 있는 브릴리언시한 재질의 점퍼를 착용한 경우로 모두 19명이 입어 9.3%의 빈도를 나타내었는데, 최근의 유행하는 아이템으로 보인다. 소프트재질과 브릴리언시 재질, 브릴리언시 재질과 소프트 재질은 모두 트레이닝룩으로 나타났다. 트레이닝룩의 아이템은 대부분 소프트 재질이거나 브릴리언시 재질로 구성되었다.

헤어스타일 : 헤어 스타일은 남자 청소년은 길이에 따라 아주 짧은 머리는 스포츠형으로, 중간길이는 중간머리형으로, 귀를 덮는 길이 이상은 긴 머리형으로 분류하였고, 앞 머리의 헤어 스타일에 따라 복고형(양귀를 중심으로 2:8의 비율에서 앞 가리마를 나누어 앞머리를 내리는 헤어스타일), 세운형(무스나 젤 등으로 머리 전체에 발라 세운 헤어 스타일) 머리로 헤어 스타일을 분류한 다음 염색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모자를 쓴 경우는 액세서리로 분류하였으며, 남자 청소년의 헤어스타일의 분석은 Fig. 5와 같다.

전체 남자 청소년의 헤어스타일을 관찰한 결과, 중간길이형의 머리 스타일의 수가 80명으로 전체의 39.2% 차지해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은 젤, 무스 등으로 머리를 세운형의 헤어 스타일의 수가 49명으로 24%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스포츠머리, 복고형, 긴머리형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이 외에 염색한 헤어스타일의 수는 7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였다.

신발 및 액세서리 : 전체 남자 청소년의 신발에 대한 분석은 Table 2와 같다. 운동화를 착용한 수는 모두 99명으로 48.5%, 구두를 착용한 수가 98명으로 48%를 차지해, 신발은 운동화와

Fig. 4. The texture analysis of wearing style of male teenagers.

구두로 양분되고 있다. 그 외에 슬리퍼가 3명, 워커가 1명으로 관찰되었다.

남자 청소년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수가 75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해,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의 129명보다 낮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밖에 니트 머플러를 착용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모자를 쓴 남자 청소년은 모두 22명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하였고, 캐주얼 복장에 캡모자를 쓴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 니트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4.2. 여자 청소년 스타일 분석

10대 후반의 여자 청소년 2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이템 분석 : 여자 청소년의 상의와 하의의 아이템 항목에 대한 빈도 및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가장 많이 나타났던 상의의 아이템은 티셔츠 81명으로 전체의 30.5%가 입고 있었다. 두 번째는 터틀넥으로 79명이 하나만 착용하는 경우와 자켓이나 가디건 안에 이너웨어로 착용하는 경우로 나타났는데, 전체 29.8%의 빈도를 보였다. 세 번째로 많이 착용하는 아이템은 점퍼로 70명이 26.4% 보이고 있다. 셔츠 아이템은 63명으로 23.7%를 차지하며, 자켓은 41명으로 15.4%, 스웨터는 35명으로 13.2%, 가디건은 26명으로 9.8%, 트윈니트는 21명으로 7.9%, 트렌치 코트는 11명으로 4.1%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던 하의 아이템은 청바지로 124

Fig. 5. The analysis of hair style of male teenagers.

Table 2. The item analysis of shoes style of male teenagers

아이템	빈도 (%)
운동화	99 (48.5%)
구두	98 (48%)
슬리퍼	3 (1.5%)
워커	1 (0.5%)
합 계	202 (100%)

명이었으며 46.7%였다. 그 다음은 면바지를 39명으로 14.7% 였는데, 남자 청소년 보다 훨씬 착용빈도는 낮았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스커트의 착용이 41명으로 15.5%를 차지하였다. 하 의의 아이템 중에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과 달리 힙합스 타일의 바지착용이 29명으로 10.9%를 나타내었는데, 남자 청소년의 바지통은 좁거나 아래로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스타일이 었지만, 여자 청소년은 반대로 헐렁한 힙합스타일의 바지를 많 이 착용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아이템으로 여러 가지 연출로 착장하고 있었는데, 이를 Fig. 6에 대표적인 착장 스타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훨씬 다양한 스타일을 연 출하고 있었다. 제일 먼저 남자, 여자 청소년 모두 하의에 면 바지나 청바지를 착용하고 티셔츠나 셔츠를 입고 상의에 점퍼 를 연출시킨 점퍼룩이 50명의 빈도를 보여 18.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두 번째는 스웨터룩으로 하의에 청바지나 면바지를 입고 스웨터를 착용한 스타일로 모두 36명이 입어 13.6%를 빈 도를 보였다. 다음은 가디건룩으로 면바지에 셔츠, 그 위에 가 디건을 착용한 스타일로 28명, 10.6% 나타났다. 이 순위는 남 자, 여자 청소년의 대표적인 스타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힙합 룩인데, 남자 청소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은 스타일로, 여자 청

Table 3. The item analysis of wearing style of female teenagers

상 의		하 의	
아이템	빈도 (%)	아이템	빈도
티셔츠	81 (30.5%)	청바지	124 (46.7%)
터틀넥	79 (29.8%)	스커트	41 (15.5%)
점퍼	70 (26.4%)	면바지	39 (14.7%)
셔츠	63 (23.7%)	힙합바지	29 (10.9%)
자켓	41 (15.4%)	정장바지	28 (10.5%)
스웨터	35 (13.2%)	트레이닝바지	2 (0.7%)
가디건	26 (9.8%)	원피스	2 (0.7%)
트윈니트	21 (7.9%)		
트렌치코트	11 (4.1%)		

소년은 바지통이 헐렁한 청바지나 면바지와 풍성한 스타일의 점퍼나 티셔츠를 연출시켜 입는 경우가 28명 10.6% 나타났다. 티셔츠룩은 24명, 9.1%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트윈니트룩으로 상의에 터틀넥스웨터와 단추가 달린 가디건을 앙상블로 입는 것인데 모두 23명이 입어 8.7% 조사되었는데 현재 유행하는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남자 청소년과 비슷한 스타일 의 자켓룩으로 18명, 6.8% 빈도를 보였다. 다음은 정장룩으로 자켓과 스커트정장이거나 자켓과 바지 정장이 12명 입어 4.5% 의 빈도를 보였는데, 색상은 블랙이 가장 많이 보인다.

다음은 세미정장룩으로 색상이나 재질이 다른 자켓과 정장 스커트 혹은 정장바지를 연출시킨 것으로 12명이 입어 4.5%의 빈도를 보였다. 여자 청소년은 트렌치코트를 착용하는 경우가 11명 조사되어 4.2%빈도를 보였다. 다음은 블루진룩으로 상의 와 하의에 청으로 만든 의복을 착용한 경우로 5명, 1.9%로 나 타났다. 남자 청소년이 셔츠가 대표적으로 많이 착용하는 아이 템으로 조사된 것과는 달리 여자 청소년은 셔츠를 착용하는 경

Fig. 6. The analysis of wearing style of female teenagers.

Fig. 7. The color analysis of wearing style of female teenagers.

우가 5명으로 1.9% 나타났다. 다음이 베스트를 착용한 베스트룩이 5명, 1.9%, 트레이닝룩이 3명으로 1.1%, 원피스를 착용하는 경우가 5명으로 1.9%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색채분석 : 여자 청소년 의복 색채 연출을 관찰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상하의 의복을 단일색으로 연출한 스타일은 18명이며 6.8%빈도를 나타내었는데 블랙의 빈도가 9명으로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는 색이었다. 2색 이상으로 의복을 연출시킨 스타일이 247명, 93%빈도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의, 하의 의복을 두 색으로 연출시킨 스타일은 모두 141명, 53.2%으로 동일한 색이나 유사한 색상으로 배색한 유사배색은

20명, 7.5%로 베이지색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대계열의 색으로 배색하거나 톤차가 나는 배색연출한 경우는 모두 121명, 45.7%로 조사되었는데 블루와 베이지색상의 배색연출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3색으로 유사배색한 경우는 4명, 1.5%로 나타났다. 역시 베이지색상의 배색연출이 주목된다. 3색으로 대조배색연출한 경우는 94명, 35.5%로 나타났으며 2색에서 나타난 블루와 베이지의 색상에 레드, 블랙, 오렌지색상으로 연출하고 있었다. 4색 이상의 대조배색으로 연출한 경우는 18명, 6.8%로 나타났다. 전체 색상 분석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대조배색으로 연출하는 빈도가 가장 높고, 많이 연출되는 색상은 베이지,

Fig 8. The pattern analysis of wearing style of female teenagers.

블루, 블랙이었다.

무늬 분석 : 여자 청소년은 총 67.2%가 무늬로 된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무늬가 있는 경우는 87명으로 32.8 %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자 청소년과 유사하게 무늬로 된 의복을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로고나 캐릭터 등의 원 포인트 무늬가 들어간 의복을 착용한 경우는 모두 42명으로 15.8%를 나타내었다.

세부적으로 무늬가 있는 경우를 분석한 Fig. 8을 보면, 기하학무늬는 체크무늬가 22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체크무늬가 있는 아이템으로는 스커트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 체크무늬가 자켓, 셔츠, 점퍼, 바지에 나타났다. 스트라이프 무늬는 티셔츠, 터틀넥, 스웨터, 자켓, 트윈니트, 셔츠에서 관찰되었으며 양식무늬는 스웨터, 터틀넥, 트윈니트, 바지에서 나타났다. 추상무늬는 가디건에서 나타났다.

소재 분석 : 여자 청소년 착용 스타일의 소재분석에 대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유사재질에서 상의, 하의를 동일재질로 연

출한 경우는 스커트 정장과 바지 정장 스타일로 12명, 5.9%로 나타났다. 상의, 하의를 유사한 재질로 연출한 경우는 하드한 재질과 하드한 재질이 많이 나타났는데 68명으로 25.7%의 빈도를 보였다. 여자 청소년이 많이 입는 하드한 재질의 아이템으로는 자켓, 점퍼, 트렌치 코트 등의 상의와 청바지, 면바지의 하의로 구성되었다. 소프트한 재질과 소프트한 재질과의 연출된 경우는 남자 청소년에게서는 트레이닝룩이 많이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은 원피스를 착용한 2명이 0.8%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상의, 하의에 각각 이질적인 재질의 연출에 대한 결과이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하드한 재질의 면바지, 청바지의 하의 아이템과 소프트한 재질의 가디건, 스웨터의 상의아이템의 착용이 두드러졌는데, 168명이 입어 전체 63.4%빈도를 보였다. 두 번째는 하드한 재질의 면바지, 청바지의 아이템과 번쩍임이 있는 브릴리언스한 재질의 점퍼를 착용한 경우로 모두 13명이 입어 4.9%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소프트재질의 하

Fig. 10. The analysis of hair style of female teenagers..

의와 하드한 재질의 상의는 2명, 0.8%의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트레이닝룩으로 분석되었다.

헤어스타일 분석 : 헤어 스타일을 여자는 길이에 따라 숏컷트 등의 짧은 머리, 단발 등의 중간 머리, 어깨에 닿는 정도 이상을 긴 머리로 나누었다. 머리를 묶은 스타일에 따라 묶은 머리A형(머리카락을 전체 하나로 묶은 헤어스타일), 묶은 머리B형(머리카락의 일부만 묶은 헤어스타일), 묶은머리C형(머리를 하나로 묶은 다음 머리카락 끝을 동그랗게 말아 넣어 묶은 헤어스타일), 묶은머리D형(머리를 묶을 때 정수리 부분을 아주 부풀려 묶은 헤어스타일)으로 분류하였고 모자를 쓴 경우는 액세서리로 분류하였다. 헤어스타일을 분류한 다음 염색, 파마, 깎임형(양귀를 중심으로 앞가리머를 2:8로 나누어 앞머리를 이마에 동그랗게 붙이는 헤어 스타일)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에서 전체 여자 청소년의 헤어스타일을 관찰한 결과, 긴머리 스타일의 수가 112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해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간머리가 72명으로 27.2%, 묶은머리가 43명으로 16.2%를 각각 차지하였다. 여자 청소년은 긴머리를 묶어서 연출할 때 반만 묶는다든지, 머리카락의 끝을 동그랗게 말아 넣어 묶는다든지, 정수리 부분을 아주 부풀려 묶는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를 주고 있었다.

앞머리를 앞으로 드리워 복고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깎임형은 현재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스타일로 중간머리형에 29명, 10.9% 긴머리형에 21명, 7.92% 연출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깎임형은 59명, 22.2%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은 염색한

Table 4. The analysis of shoes style of female teenagers

아이템	빈도 (%)
구두	151 (57%)
운동화	87 (32.8%)
워커	13 (4.9%)
부츠	3 (1.1%)
롤러브레이드	1 (0.4%)
합 계	265 (100%)

헤어스타일이 17명, 6.4%로 조사되었고, 파마를 한 사람은 23명, 8.6%로 나타나 남자청소년보다 빈도가 높았다.

신발 및 액세서리 : 전체 여자 청소년들의 신발 아이템 분석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남자 청소년들과는 반대로 여자 청소년중 구두를 착용한 경우는 모두 151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여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운동화를 착용한 경우의 수가 87명으로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밖에 워커를 신은 경우가 13명, 부츠를 신은 경우가 3명, 마지막으로 롤러 브레이드화를 신은 경우는 1명으로 집계되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다양한 스타일의 신발을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자 청소년의 수는 모두 206명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하며, 이 밖에 액세서리로는 니트 머플러, 스카프등의 아이템이 많이 관찰되었다.

모자를 쓴 경우는 전체의 16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였고 캡모자, 니트모자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5. 결 론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리트 패션 조사법을 사용하여 2001년 9월에서 11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착장 스타일 경향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이템에 대한 착장 동향을 상의와 하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자 여자 청소년 모두 단품 위주의 착장을 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아이템은 청바지, 면바지였고, 남자 청소년은 티셔츠와 셔츠를 많이 착용하며, 여자 청소년은 티셔츠와 터틀넥을 주로 착용하였다.

착장 스타일에 대한 분석 결과, 남자, 여자 청소년 모두 청바지에 점퍼를 착용한 점퍼룩의 빈도가 가장 높아 대표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스웨터룩, 가디건룩, 티셔츠룩의 순위로 착장하고 있었다. 이 스타일들은 모두 이지캐주얼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재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이었다. 정장룩, 세미정장룩은 남자, 여자청소년 모두 비슷한 빈도로 착장하고 있었으며, 길이가 짧은 자켓과 바지통이 좁은 청바지를 연출시킨 자켓룩은 청소년들이 많이 착장하는 스타일이었다. 여자 청소년들은 힙합 스타일의 청바지와 점퍼를 착용한 힙합룩, 트윈니트를 상의에 착용한 트윈니트룩, 트랜치코트룩, 블루진룩 등이 남자 청소년들 보다 좀더 개성있고 다양한 스타일을 착장하고 있었다.

2. 색채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상의, 하의 조합에서 대조되는 배색 연출을 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색상은 블루와 베이지색상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단일 색으로 연출하는 경우는 블랙의 색상이, 유사한 색상으로 연출할 경우는 베이지, 그레이 색상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3. 무늬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무늬가 있는 의복보다 무늬의 의복 착용빈도가 훨씬 높았으며, 상의 하의에 한쪽으로는 무늬가 있는 의복으로 연출하고 있었다. 무늬가 있는 의복의 경우는 체크무늬의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대표적인 아이템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셔츠였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스커트였다. 스트라이프 무늬는 가디건, 티셔츠의 아이템에서 많이 나타났고, 양식무늬와 추상무늬는 스웨터에서 관찰되었다. 로고나 캐릭터 등의 원포인트 무늬가 들어간 티셔츠나 후드티셔츠를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4. 소재에 대한 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모두 하드한 재질의 하의에 소프트한 재질의 상의를 이질재질로 연출시킨 스타일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 하드한 재질의 하의에 하드한 재질의 상의를 연출시킨 스타일로 나왔으며, 브릴리언시 재질의 점퍼류를 상의에 착용한 스타일이 관찰되었다.

5. 남자 청소년들의 헤어스타일은 스포츠형, 중간머리형, 긴머리형, 복고형, 세운형으로 분류되었고, 여자 청소년들의 헤어스타일은 짧은머리형, 중간머리형, 긴머리형, 묶은머리형 등으로 분류되었고, 여기에 남자, 여자 모두 염색한 스타일이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깎임형과 파마형 등으로 연출한 스타일이 관찰되어 훨씬 다양하였다.

6. 신발과 액세서리에 대해 관찰한 결과 남자 청소년은 운동화, 여자 청소년은 구두를 가장 많이 착용하였으며, 남자의 경우 가방을 들고 다니는 빈도는 낮았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가방을 많이 들고 다녔으며 액세서리의 경우 니트머플러와 모자를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이상의 청소년의 스트리트 패션 착장 스타일에 대한 경향의 결과는 기존의 성인들을 대상에서 청소년으로 조사 대상을 세분화 시킴으로서 시장세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실제 착장하고 있는 아이템, 색채, 무늬, 소재에 대한 데이터 분석적으로, 의류업체의 상품기획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의류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할 때 청소년들이 착장하는 스타일을 고려하여 연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의 착장 스타일을 분석하면서 적당한 용어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사진을 분석하면서 얻은 데이터라는 한계점과 지역적인 제한이 따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진촬영조사와 함께 면접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연구로서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분석과 여러 계절에 걸쳐 지속적인 관찰로서 착장 스타일의 트렌드 변화추이를 고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 교문사, 서울, p.109.
 고은주 (2001) "패션정보산업". 경춘사, 서울, p.2.
 문미아·박혜선 (2000) 남자 중·고등학생의 자기이미지와 의복추구 이미지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748-759.
 신혜영 (1996) 스트리트 패션을 근원으로 한 영 패션의 형성에 대한 연구. *복식*, 28(2), 5-16
 안광호·황선진·정찬진 (1999) "패션마케팅". 수화사, 서울, pp.121-127.
 오해순 (2000) 의복재질의 감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은소영 (2000)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의 (2001) "패션디자인발상". 교문사, 서울.
 이은실·이명희 (1999)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정보탐색 및 유행물임과의 관계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3), 402-413.
 임숙자·신혜봉·김혜정·이현미 (2001) "패션마케팅과 소비자행동". 교문사, 서울, p.97.
 정은숙·김지선 (2001) 20-30대 여성 소비자들의 착장 동향에 대한 연구-스트리트 패션 조사법을 이용하여 관찰한 2001년 2월~8월의 착장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 105-126.
 채선주·조규화 (2000) 캐릭터 패션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4(1), 1-12.
 최윤미 외 11인 (1998) "현대 청년심리학". 학문사, 서울.
 한국패션협회 (2000) 2000년 패션 수요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남성복 조사보고서 II.
 MacGillivray S.M. and Wilson D.J (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Textiles Research Journal*, 15(1), 43-49.

(2002년 1월 31일 접수)